

미얀마팀의 12월 보고서

미지존



오현진
신유정
안소연
홍세현
구건모

w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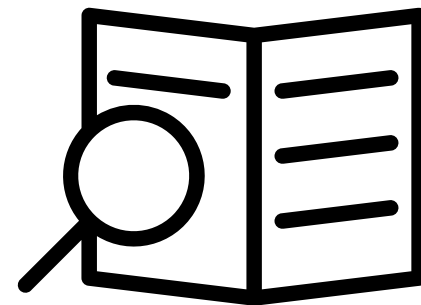


목 차

01 홈스레이 in 꺾로

02 아띠 프로젝트

03 미지존의 소감



홈스레이 in 펄로

홈스테이 in 꺄로



가자! 꺄로(Kalaw)로~~

차를 타고 달려 열 몇시간 끝에,
우리는 꺄로에 도착했다.
오랜 시간동안 트럭 짐칸에
있었기 때문에 홈스테이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다들
지쳤었다.

꺄로에 사시는 마을 주민 분
집에서 머무는 줄 알았는데
오렌지 밭에 집 한 채만
덩그러니 있어서 조금
당황했었다.

그러나 2주간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 할 생각이 우리와
알렉스를 즐겁게 했다.

홈스테이 in 꺄로

꺄로로 가기 전, 마지막 경유지



우리를 위해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는 아이들



홈스테이 in 꾀로



여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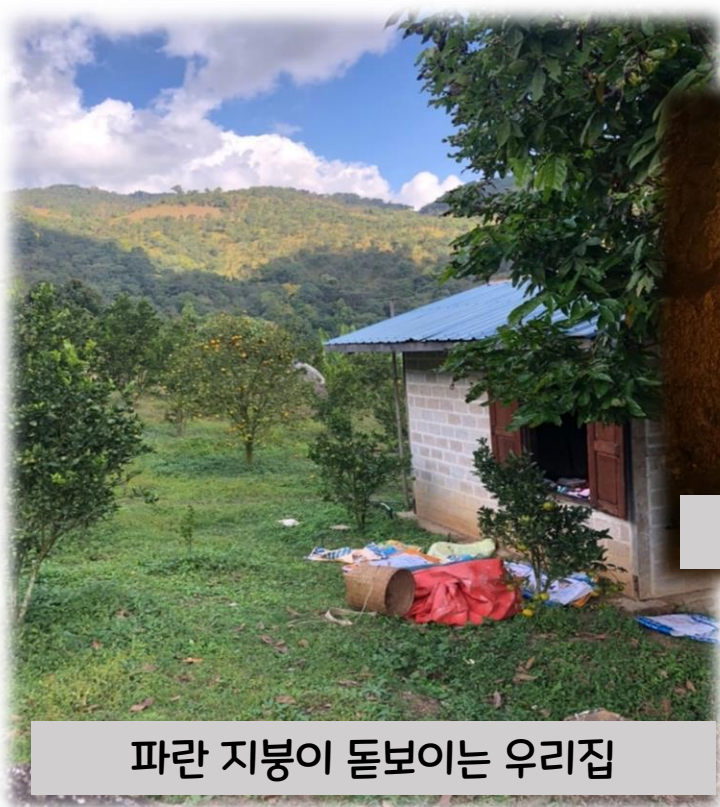


남자방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집이었기 때문에 청소가 필요했다. 우리는 구석구석 청소를 했다. (쥐똥이 엄청 많았다...^^)

홈스테이 in 꾀로

우리집을 소개합니다~!



파란 지붕이 돋보이는 우리집



밤에는 양초 필수!



우물에서 모든 것을 해결

홈스테이 in 꾀로



우리의 친구 '요마~이'

집 주변이 오렌지 밭이어서 오렌지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홈스테이 in 꾀로



탁 트인 풍경과 파란
하늘이 제일 잘
보이는 우리 집!



홈스테이 in 꾀로



- 요리하는 방법
1. 우물에서 쌀과 채소 등을 씻는다.
 2. 불을 피우기 위해 장작을 만든다.
 3. 불이 더 타오를 수 있게 숯과 종이 등을 넣는다.
 4. 요리가 완성 될 때까지 부채질을 해준다.



홈스테이 in 꺄로



꺄로에서의 월, 수, 금요일에는 보육을 했다. 우리의 보육지는 걸어서 한시간 정도 걸리는 마을에 위치했다. 양곤보다 덥지도 않고 아침에는 선선해서 걸기에 딱 좋았다.

홈스테이 in 꾀로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아기상어 노래로 시작!

홈스테이 in 꺄로



우리들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사랑과 행복을 싣고서~

홈스테이 in 꺼로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홈스테이 in 꾀로



땃! (1) 니! (2) 땡! (3)

홈스테이 in 꺄로



꺄로에서도 성교육을 했다. 오늘은 성교육을 한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다른 반 아이들도 와서 참여했다. 선생님들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셨고 우리도 그 기운을 받아 더 적극적으로 보육에 임했다. 성교육 보육이 끝나고 선생님은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우리가 성교육을 하기 전 날에 남자아이 두 명이 여자아이에게 볼 보보를 하고 달아나서 많이 혼났다고 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육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다.

홈스테이 in 꾀로



보육

몸풀기



보육의 시작은 동요 부르고 몸풀기 체조로 시작합니다!

보 육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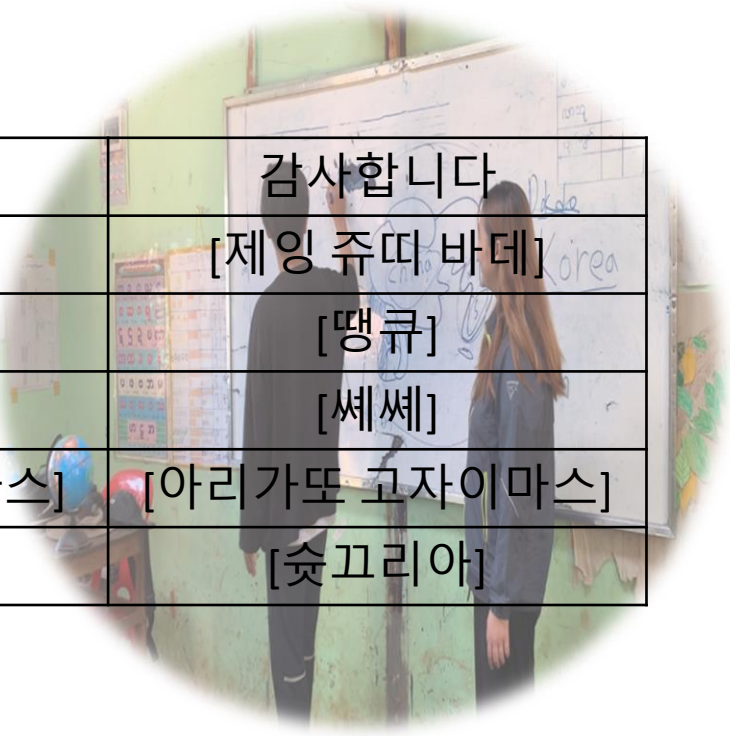
땅이 흔들린 것을 느끼면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운동장으로 뛰어 나간다”는
현진단원과 건모단원의 설명 이후



아이들은 아피들의 지도 하에 잘 훈련했습니다.

보 목

외국어 수업



한국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얀마	[밍글라바]	[제 잉 쥬띠 바데]
영어	[헬로], [하이]	[땡큐]
중국	[니 하오]	[쎬쎬]
일본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인도	[나마스테]	[숏끄리아]

외국어 수업



숫자를 영어, 미얀마어, 한국어로 배워보기

홈스테이 in 꺄로



꺄로에서의 화, 목, 토, 일요일은 마을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민분들과 함께 마을의 일을 도왔다.
결혼식에 참여하거나 흙을 나르는 등 여러 활동을 했다.

홈스테이 in 꾀로



파고다 탐방



홈스테이 in 꺄로



꺄로 전통 옷 입어 보기



홈스테이 in 꾀로



주민분들을 도와 흙 나르기



일상

마을에서 보내는 일상



장보기
밥 먹기



옆 마을 축제



오렌지 재배



일 상

홈스레이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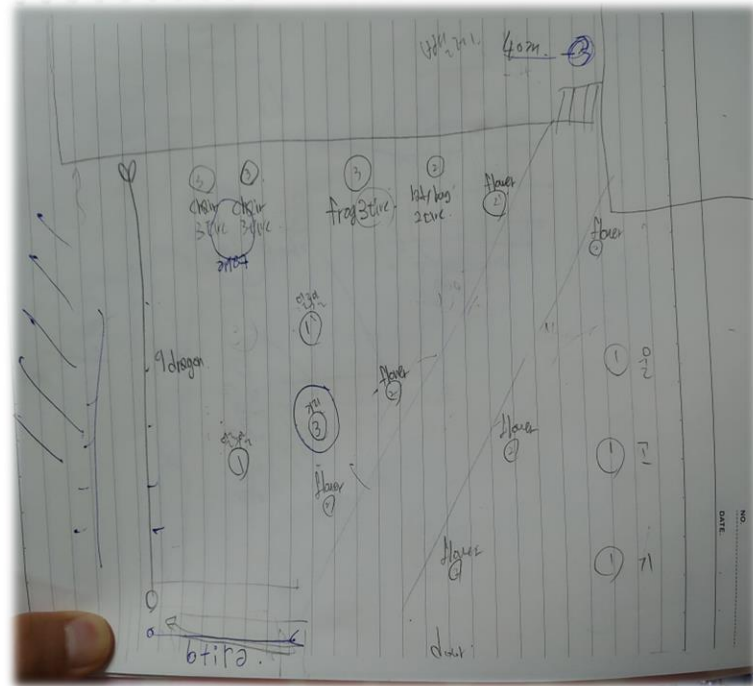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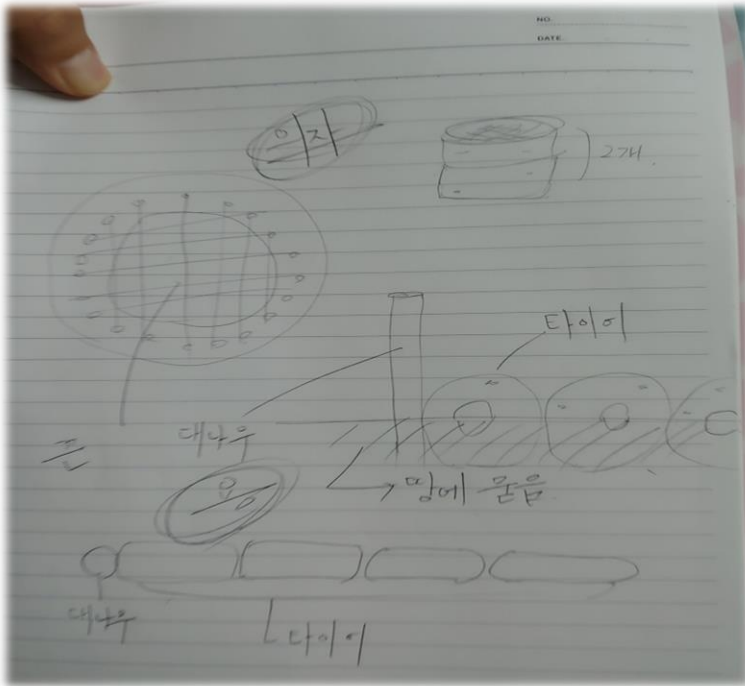


청소 후, 양곤으로 돌아가자~

아띠 프로젝트

아띠 프로젝트

라이어 놀이터 설계



라이어로 놀이터를 만들기에 앞서 종이에다 먼저 동물과 의자의 설계도와 어디에 배치하면 좋을지 구성하였다.

아띠 프로젝트

타이어 기본 색칠



타이어에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기본 바탕이 되는 프라이머를 먼저 칠했다.

아띠 프로젝트

타이어 색갈 색칠



아띠 클럽멤버들과 타이어에 알록달록한 색갈을 입히고 있다.

아띠 프로젝트

타이어가 들어갈 자리 마련



타이어를 묻기 위해 땅에 돌을 고르고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파는 과정이다. 물집이 잡힐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다.

아띠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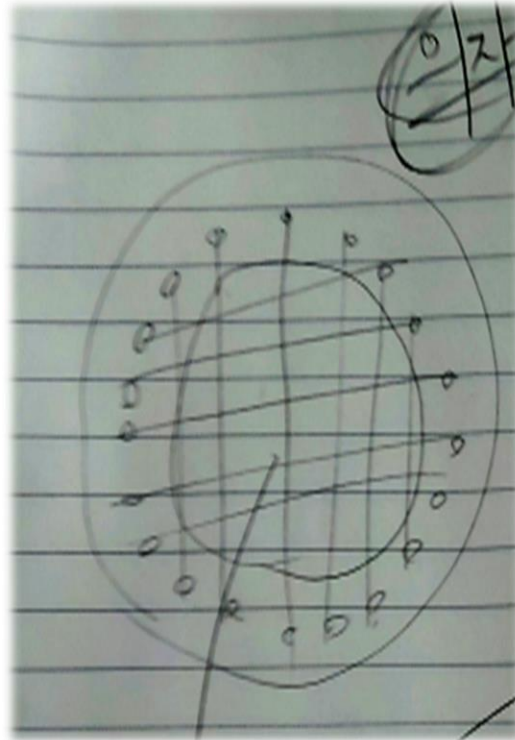
라이어 자리에 놓고 색칠하기



다듬어 놓은 자리에 타이어를 놓고 색칠해서 완성하는 과정이다. 용, 무당벌레, 얼룩말, 개구리, 의자, 기린을 만들었다. 용, 기린, 얼룩말을 몸은 대나무에 페인트를 칠하여 만들었다.

아띠 프로젝트

라이어 의자 만들기



설계도에 맞게 의자에 구멍을 내서 로프줄로 엮어 엉덩이 받침대를 만들었다.

소감

미지존의 소감

신유정

홈스레이를 하면서 '내가 언제 이런 환경에서 살아 보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만큼 새로웠고 진귀한 경험이었다.

아띠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은 아이들 생각 뿐이었다. 우리가 만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생각을 하니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었다.

라온아띠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모두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한다.

안소연

미얀마에서의 마무리와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시기로 머리와 마음이 복잡하다.

구건모

내가 해외봉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상기시키게 되는 한 달이었다. 곧 귀국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해야겠다.

미지존의 소감

오현진

홈스테이를 지내고 아띠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제 미얀마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간다는 것에 아쉬움이 들었다. 홈스테이의 추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홍세현

이번 아띠 프로젝트를 하면서 크게 느낀 것은, 서로 잘하는 분야를 구분하여 분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잘하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여 팀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팀에 도움이 되는데, 그동안은 확신과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에는 겁 먹지 말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미지존 모두 남은
기간도 앞으로 이렇게
웃으며 보람차게 지내자!**

감사합니다.